

기획시리즈 / 2009 캠페인 "Go! Green Logistics"-10

물류센터 지붕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대한통운 : 국내 최대 규모로 녹색물류 발전에 좋은 본보기-



2009 연중 캠페인
"Go! Green Logistics"

후원업체

후원기관

지붕위로 쏟아지는 태양광을 잡아라!

'친환경' 이 기업경영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업들이 '친환경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달 24일에 르노삼성자동차가 경상남도 함안부품센터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미 지난 해 제철소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나섰다.

해외에서는 월마트 같은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매장 지붕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해 전력을 자체 생산해 내고 있다.

국내 물류업체로는 대한통운이 그동안 유휴공간으로 내버려졌던 물류센터의 지붕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을 시작한다. 대한통운은 이를 위해 지난 달 9일 한국남부발전과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동개발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사업을

위해 대한통운과 한국남부발전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패널이 설치되는 장소는 대한통운의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의 군포와 양산복합물류터미널 물류센터 지붕이다. 태양광 발전패널이 설치될 군포와 양산 복합물류터미널 지붕 면적을 합하면 99,174㎡(3만 평)로 국제규격 축구장 14개 넓이와 맞먹는다. 여기에 2.5MW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들어서게 된다. 건축물 지붕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2.5MWH는 형광등 12만5천 개를 밝힐 수 있으며, 1천 가구가 동시에 소비하는 규모의 전력과 같다. 이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에 판

매된다. 대한통운은 군포와 양산복합물류터미널에서 시범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한 뒤 이를 다른 복합물류터미널이나 택배터미널 등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국동 사장은 "향후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물론 친환경 녹색물류 구현에 지속적으로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통운의 이번 사례는 유휴공간이었던 지붕을 활용함으로써 시설 운영효율을 높였다는 점에서 국내 녹색물류 발전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중 기자, dldls@klnews.co.kr)

해외 유사사례 / 美 프로로지스, 발전업체에게 지붕임대

지난 해 초 미국 굴지의 물류업체인 프로로지스는 자사의 창고 지붕을 캘리포니아 주 최대의 발전업체인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에 임대해 줬다. 캘리포니아 주 폰타나에 있는 프로로지스의 카이저 물류파크에 있는 60만7,000평방피트의 지붕 공간은 태양에너지 사업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 지붕 공간에 태양 패널을 설치하면 1년간 1,426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얻을 수 있다.

프로로지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 5~10개의 별도 설비를 추가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5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력 설비를 완공하면서 총 250mw의 설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프로로지스는 지붕을 이용한 태양에너지 사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프로로지스의 태양광 자원은 무궁무진하다. 미국에서만 180개의 물류센터에 총 4,100만 평방피트의 지붕 공간을 갖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서는 5억 평방피트 이상의 지붕공간을 갖고 있어 엄청난 수요가 기대된다.